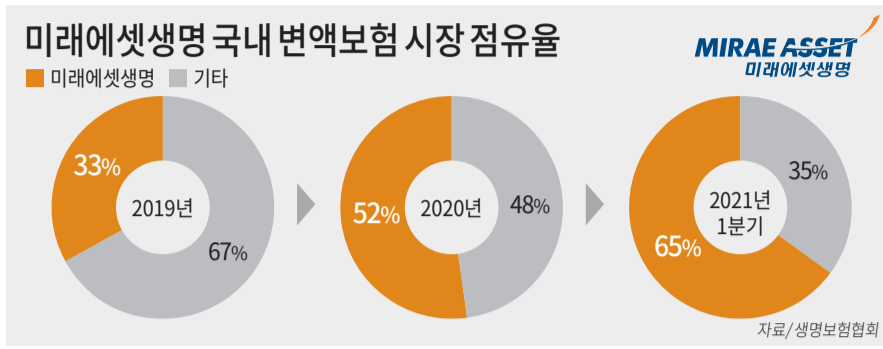


‘MVP펀드’ 대박...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왕좌’ 올라

변액보험시장 폭풍 성장세
미래에셋, 점유율 50% 돌파
MVP펀드60 누적 수익률 70%
수요 증가에 상품 라인업 강화



증시 활황에 따라 국내 변액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에서 선두를 달리며 왕좌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투자 성과를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 변액보험 상품의 절반 가까이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에 투자되고 있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7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변액보험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생보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총 3조1044억원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 올 1분기에도 1조5867억원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 5954억원에서 166.5%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변액보험 상품별로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1조78억원에 달하는 초회보험료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9.8% 늘어났다. 변액연금과 변액종신보험도 각각 4048억원, 5440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다. 변액적립보험 및 변액CI보험은 682억원을 달성했다. 회사별로는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

험 시장에서 왕좌 자리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 변액보험을 통해 달성한 초회보험료는 1조426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65.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9년 3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뒤, 지난해 50% 이상의 점유율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성장세는 업계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의 급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MVP펀드 시리즈는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전략 수립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 25일 기준 순자산 3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MVP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순자산 1조원을 달성한 뒤 2년만인 지난해 9월 순자산 2조원을 기록했다. 이어 9개월만에 1조5000억원의 순자산을 늘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MVP펀드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긍정적인 수익률에 따른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대표 상품 MVP펀드60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70.4%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높고 변액보험과 관련해 인지도가 높은 만큼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변액보험 상품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변액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MVP펀드를 퇴직연금에도 확대 출시했다. ‘퇴직플랜 글로벌 MVP펀드’와 ‘퇴직플랜 ETF글로벌 MVP펀드’를 통해 글로벌 우량 자산에 합리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의 은퇴설계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온라인채널의 변액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 2종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1만원의 최저가입보험료로 변액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험 상품 중에서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이고, 고객들의 수요도 높은 만큼 기존 변액보험 상품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은행 점심시간 섣다운 전면시행 이견 부분

지방은행선 점심시간 섣다운 추진
BNK부산은행 내달부터 시범운영
소비자 “직장인 이용 어려워” 반발

지방은행에서 일부 소규모 영업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섣다운’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점심시간 섣다운제는 은행원의 중식 및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이 2~3교대로 점심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내방 고객이 풀리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해 식사를 거르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교대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함을 줄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소형 점포 직원들의 ‘점심시간 섣다운제(점심시간 동시사용)’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시행 대상은 ▲영주동 ▲정관모전 ▲남천삼익 ▲사직쌍용 ▲신개금 ▲신덕포 ▲광일로 ▲부산외국어대 ▲동명대 ▲용당 등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한다. ▲신라대 ▲동의과학대 점포는 오전 11시부터 12시반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실시해 해당시간 동안은 업무가 중단된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DGB대구은행이 소형 점포 7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섣다운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도 방문 고객이 적은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만 점심시간 섣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2~3시간동안 인력이 분산돼 혼잡했던 교대근무와 달리,

한 시간 동안 직원들이 동시에 쉬어 나머지 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지난 2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관련 안건을 다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심시간 휴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점포를 방문하는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이들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면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점심시간 섣다운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지난 7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왼쪽부터)한국정보통신 임명수 대표이사, 갤럭시아미트리 신동훈 대표이사,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 핵슬란트 노진우 대표이사, NH농협은행 이상래 디지털금융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디지털자산 사업 본격 진출

한국정보통신 등과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갤럭시아미트리, 한국정보통신, 핵슬란트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사들은 ▲‘옥텟’ 기반의 커스터디 연구·개발 ▲대체불가토큰(NFT) 및 증권형토큰공개(STO) 연계 ▲디지털자산 활용 결제 협력 ▲디지털자산 분야 신사업 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과 커스터디는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신규 사업

이다. 미술작품을 비롯해 부동산, 음원, 게임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지분 투자, 사업연계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활용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디지털금융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경남은행 ‘간편해외송금서비스’ 실시

BNK경남은행은 해외송금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BNK더조은 간편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BNK더조은 간편해외송금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해외송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환율과 송금수수료를 각각 50% 우대해 준다. 이용 대상은 개인고객(국민인 거주자)이며, 거래 가능 한도는 미국 달러화 5000달러 이하다. 송금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일본 엔화(JPY)·유럽연합 유로화(EUR)·영국 파운드화(GBP)·캐나다 달러화(CAD)·홍콩 달러화(HKD)·뉴질랜드 달러화(NZD)·호주 달러화(AUD) 8종이다. /이영석 기자

교보생명,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비허가 획득... 사업 본격 박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MOU

교보생명이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금융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교보생명은 본격적으로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지원 협력을 위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KoEF)과의 전략적 업무제휴(MOU)도 체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본허가도 신청했다. 심사를 통해 본허가를 획

득하게 되면, 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대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금융마이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에는 금융마이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금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보증권 및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금융생활지수를 공동 개발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교보생명은 고객에게 색다른 서비스 경험을 선사할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권 첫 ‘카드형 RCS문자’ 도입

IBK기업은행은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피싱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문자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최초 ‘카드형 RCS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의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메시지 발송시 기업의 로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형 RCS 문자 도입으로 고객이 기업은행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도 공식로고·명칭이 자동으로 표시돼 은행이 보낸 문자임을 구별할 수 있

다. 이로써 IBK를 사칭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상품·서비스·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의 대량 문자 발송시 메시지 카드(슬라이드형)가 가능하다.

IBK는 대출이자내역,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와 연동된 문자를 비롯해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문자도 ‘RCS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카드형 RCS 문자는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